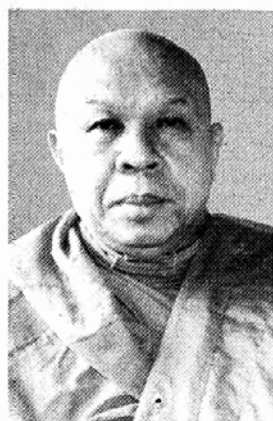


"21세기는 마음법이 지배"

내한한 태국왕사 소핏스님



"소승과 대승이란 구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상근기와 하근기가 있을 뿐이지요. 근기를 키우기 위하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서울 자비정사(주지 청목) 초청으로 10일 서울에 온 소핏스님(태국 새벽사원 방장·태국왕사)은 12일 자비정사 법회에서 "다음세기를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온 인류가 혼탁한 마음을 비우고 새 마음이 되도록 고쳐야 한다"고 법문했다.

스님은 "다음세대의 문화 현상 등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의 대의인 마음법이 온 세계사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고 확신했다. 또 "이날을 위해서 승단이 먼저 바르셔야 한다"며 "스님들은 서로 이해하며, 오직 한가지 물질과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부해야 불교가 부흥하고 각자의 행복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불자들의 불심이 깊고 바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핏스님은 한국의 선불교가 인류사회의 대안으로 떠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핏스님은 현재 방콕의 새벽사원에 주석하고 있으며, 12월 5일 착공하는 태국왕 72회 고회기념 국학선립위원회 설립위원장으로 국가적인 불사를 관장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wkim@buddhopia.com)

교차로

의정부경찰서 법당개원 증명



탄성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스님은 20일 의정부경찰서 법당 개원법회에서 증명법사로 참석했다.

동화사 수성구 신도회 창립



성덕 대구 팔공산 동화사 주지는 23일 통일대불전에서 수성구신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동서양 사상세미나 참석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 스님은 (사)태백원이 18일 프레젠테이션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동서양 전통사상연구세미나에서 "불교적 입장에서 본 윤리적 지평과 미래 세계"에 대해 발표했다.

선원사 복원 3천일기도 회향

선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25일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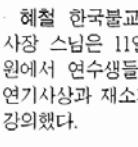
전 10시30분 '선원사 복원을 위한 3000일 지장기도 회향법회'와 고려시대 탄생불 친견대법회를 봉행했다. (032)933-8234

예비역군법시단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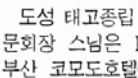
성광 예비역군법시단 단장(화계사 주지) 스님은 23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2000년도 사업계획 승인 등의 안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범무연수원생 특강



해철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 스님은 11일 범무부 범무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법·연기사상과 재조사교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5일 동방인의 밤 행사



동성 태고종림 동방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스님은 12월 5일 오후 5시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제3회 동방인

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과 정태혁 학장을 비롯한 학교관계자와 동문, 재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장상문 거사 7주기 추모법회



서둔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20일 3층 대법당에서 불교진흥원 및 불교방송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장상문 거사 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진주서 공직자 대상 특강



박완일 한국사회의학연구회 회장은 22일 진주시 문화회관에서 공직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변해야 산다' 주제로 강연했다.

인도·네팔 성지순례



신광식 불교언론인회 회장(방송진흥원 관리처장)은 전·현직 불자언론인 20여명과 함께 8일부터 15일까지 인도 네팔 등 부처님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따뜻한 세상 느끼게 한 릴레이 신장기증



◇용봉스님



◇지주현씨

만성신부전증을 앓아온 한 주부에게 스님이 신장을 기증하고, 그 남편은 고마움의 표시로 다른 신부전증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따뜻한 미담은 전북 남원 산동면 승려사 용봉스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 만행종이던 용봉스님은 지난 8월 생명나눔실천회를 방문해 "모든 만물은 인연 따라 서로 돕는데 장기기증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신장기증을 서약했다.

생명나눔실천회는 곧바로 용봉스님과 신장조직이 일치하는 환자를 찾았고 그 중 생명나눔실천회를 맞춰려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던 전정남씨(47·구리시 수택동)가 대상자로 떠올랐다. 전정남씨는 가족들과 조직이 맞지 않고 순수기증자도 없어 신장 투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오던 중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씨의 남편 지주현씨(53)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신장을 기증했고 마침내 자신의 아내와 같이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김덕자씨(43·서울 광진구 자양동)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기로 했다. 이들 네 사람은 17일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나란히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단계에 있다.

용봉스님은 수술 후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지비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며 "이로 인해 또다른 사람도 새생명을 얻게 됐으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opia.com)

■의정부경찰서 법당건립 주역 심재열 경감 경찰포교 숨은 일꾼... "종단지원 절실"

"15만 경찰이 불심으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승 및 신도들의 노력과 함께 종단의 제도적 지원이 가장 절실합니다."



경찰청 외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심재열 경감(54)은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전천후 포교사'다. 현직경찰로서는 유일하게 경찰종합학교 및 의정부경찰서 경승법사를 맡고 있는 심 경감은 태고종 승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계종 포교사로서 중수지리회의 양택(陽宅, 무덤)이 아닌 사는 곳의 환경을 따지는 풍수학) 부문의 권위자로도 잘 알려진 인물. 어떤 일을 하든 처처에서 수행과 포교에 정성을 쏟으면 된다는 것이 그의 소신.

20일 개원한 의정부경찰서 법당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아 법당 건립의 산과 역할을 한 김 법사는 94년 서울 북부경찰서 경승실 개원 및 경승회의 창립, 96년 경찰종합학교 법당 창건 및 경승실 개원, 98년 의정부경찰서 법우회 창립 등 경찰포교의 숨은 일꾼 역을 자임해 왔다.

김재경 기자(jkim@buddhopia.com)



동국대 법대 후원의 밤

종림 동국대 법과대학(학장 연기영) 50주년을 기념하고 동국법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 불

국사 주지 성타, 은혜사 주지 법타스님 등과 송석구 동국대 총장, 이연택 동국법대 후원회장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인사, 동문, 재학생, 학부모 등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8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성료됐다.

"부처님 가르침-수행담 엮어"

'진리의 당체...' 펴낸

안영일 구청장



"현 시대의 우바이, 우바이들과 함께 부처님의 사상을 실천하며 상부의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진리의 당체인 부처님>(도서출판 여래)을 펴내고 13일 출간기념법회를 가진 안영일 부산진구 구청장(삼광사 신도회장)의 말이다. <진리의 당체인 부처님>은 8장으로 나누어 부처님 일대기, 경전의 탄생과 비결, 종단의 성립, 우주를 향한 진법의 법문 등 부처님의 가르침 전반을 수행

담을 곁들여 서술했다. 안 구청장은 "책을 읽다보면 어느새 인도불교사, 부파불교사대를 비롯 우리나라 불교의 시대적 변천 등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mhcheon@buddhopia.com)

"어려운 이 돕는 공직자 될래요"

행시 보호관찰직 수석

함혜현씨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과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정각원을,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약수사 부처님을 자주 찾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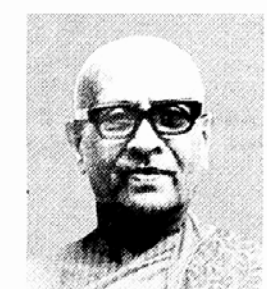
제43회 행정고시에서 보호관찰직에 응시 평균 67.93점으로 수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인사

동국대 △부속 유치원장=권은주 △산업기술원 경제학원장=김병식 △불교종합병원 및 제3캠퍼스 건립추진단 건설본부장=이문보 기획담당장 건설팀장=최창선

스리랑카 불교종정 팔리파나스님 열반



한-스리랑카 불교 교류에 앞장선 스리랑카 불교의 종정 팔리파나 다르마키토타 스님이 8일 스리랑카 마이알가나 지역 라저마하비하르 절에서 열반했다. 세수 85세.

세계불교승가회의와 세계불교법회총 회장을 역임한 스님은 한국-스리랑카 불교 교류에 기여한 공로한 82년 동국대에서 다르사나 비사르드 상을 수여받고 세계불교대회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김재경 기자

아미타 부처님을 신행하는 정토불교강좌(3년과정)

'2000학년도 아미타정토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무량광 무량수인 아미타부처님의 가피력과 위신력을 신행하는 정토행자를 양성하고자 전국 염불만인회에서는 정토법사 3년 과정의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교수진
인도정토사·중국정토사·한국정토사·영종집요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왕성문· 반주삼매경·무량수경주요·보향삼매론· 미타에참법·정토미술	한보광스님(동국대)·장취우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배원스님(승가대) 주명철교수(동국대)·정태혁교수(동국대) 강동관교수(동아대)·김영미교수(이화대) 혜경스님(무설정사)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 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증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11월 1일~ 99년 11월 30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 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 일시

1999년 12월 2일(목) 오후 7시 (동산교육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대구 : 상명불교서림 ☎ 053)425-4097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전 : 보문서점 ☎ 042)257-0161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아미타정토대학

베풀어주시신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1월 14일 '불광 창립 25주년과 월간 불광.300호 발행기념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제방의 대덕큰스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월간 불광애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법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신 후원단체와 불자연예인들을 비롯해 출연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법회에서 보여주시신 여러분의 정감어린 관심과 환희심이 새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겨레와 이웃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베풀어주시신 후의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밝고 희망찬 불국토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불광사 · 불광법회

법주 보륜 지정
주지 보하 지암
회장 박충일 합장

서울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13-6060 팩스413-6781 http://www.bulkwang.org